

Hip-A Seoul

CICA Museum _ L Gallery

April 19 - May 5, 2019

2019. 4.19 - 5.5

Featured Artists 참여작가:

Eunhye Shin, 김동욱, 오아롱, 김삼다, 박다희, 조윤중, 김영동, 최유나

1. Eunhye Shin

“Untitled (Self-portrait)” (2017)

Untitled (self-portrait) is an installation video work that explores the idea of privacy. The video shows all time zones - morning, noon, night that each describes a person's daily life. As putting all the activities and time zones in one dimension, the audience unavoidably see everything.

Eunhye Shin was born in the city of Seoul, in South Korea. She arrived Chicago in 2015 as a video artist. She is a graduate of School of the Art Institutes of Chicago (SAIC) in film, video, new media and animation. Her work focuses on abstract and experimental video narrative. She works with found footage from sharing website and original footages. Her process begins with storyboards as a brainstorming tool and then she edits the footage into short films. Her work utilizes visual effects as motifs to decontextualize their original message. This is a way for the artist to reach out to the audience to forg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audience.

2. 김동욱

“Cold Lonely Summer” (2019)

“Everything was Great in April” (2019)

“I did My Best” (2019)

“I was There Every Day” (2019)

“Something is Wrong with Me” (2019)

나는 내가 살고있는 도시 속의 하루하루 일상을 그리고 있다. 지난 5년간 머물렀던 장소를 이제는 떠나야 한다. 나는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3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었고, 2년간 카페를 운영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1년은 미술 작업실로 사용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이곳으로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많은 고민도 했었고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도 했었고 그림을 그리며 개들과 같이 공놀이도 했었다. 나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모든 추억을 잊게 될 것이다. 나는 지난 5년 동안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 날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림으로 기록하였다.

김동욱

미술가 김동욱은 1988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4살 때부터 대구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집에서 늘 그림을 그리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레 그림 그리는 것을 취미로 하였다. 어머니께서 그림을 그리셨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와 형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 작가는 어린 나이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cademy of Art University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미술학 학사(BFA) 학위를 취득하였고, 졸업 후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노팅엄의 Nottingham Trent University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미술학 석사(MA)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박사 과정에 재학중이다.

3. 오아롱

“셋;의 연결점” (2018)

“Borderline” (2018)

셋;의 연결점:

건축가 A씨는 이 세계의 건설자다. 블랙공장의 B씨는 세계를 구성하는 블랙 제작자다. 그리고 다른 세계에 있는 『』가 있다. 그들은 서로 만나지 않지만 고;레-고래라는 동물로 인해 연결점을 갖는다.

고;레-고래는 셋, 모두를 관통하는 유일한 요소다. 세 인물은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고;레-고래에 대한 개별 인상을 갖는다. 이는 우리 모두가 대상을 대하는 방식이다. 고;레-고래는 마지막에 고유한 부피를 갖지 못한 채 작게 접히고 ‘의미적 접기’가 된다. ‘의미’는 세 인물이 고;레-고래를 본 방식처럼 개별 인상으로 다가오며 이는 의미-무의미-비(非)의미 사이에 위치한다.

Borderline:

목소리의 남자는 동일한 배우(Paul Franklin Dano)의 대사를 여러 영화에서 따온 것이다. 때문에 작품 속, 그는 연속성 없이 파편화된 말을 내뱉는다. 아이는 첫 장면에서 화면 밖을 응시하는 듯 하더니 이내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몰두한다.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며 블록 쌓기를 통해 세계의 창조-구축-파괴의 과정을 수행한다.

영상의 내러티브가 향하는 곳은 두 인물의 연결점이다. 작품 명 Borderline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아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그 선을 밟고 지나간다. 그들은 돌임과 동시에 연결되는 하나이며 두 인물을 나누는 선의 두께는 한없이 넓어지고 모호해진다. 경계선에 사이 공간이 생기고 그 곳은 양가적인 것이 공존하는 상태, 불균형의 균형 상태가 된다.

오아롱은 말, 글(자막), 이미지를 결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인 영상을 통해 가상의 내러티브를 만들고 그것을 구축하는 방식을 실험한다.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어긋나고 만나면서 이야기는 윤곽을 드러냈다, 흩어졌다를 반복한다. 사건은 비연속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다수의 인물을 통해 끊어진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와 관계를 만들어 내는, 상징화 과정의 실험이다.

4. 김삼다

“大完食 : 예측할 수 없는” (2018)

“大完食 : 치밀한” (2018)

“大完食 : 참을성 없는” (2018)

“大完食 : 독립적인” (2018)

“大完食 : 이중적인” (2018)

본인의 취향에 맞는 캐릭터들이 대거 나오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맛집 열렸다.’ 라고 표현한다. ‘어떤 것을 좋아할 지 몰라 다 준비했다.’는 말처럼, 문화 생산자는 경제적 이윤을 위해 다양한 입맛에 맞추어 각기 다른 캐릭터를 구성한다.

특정 캐릭터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을 ‘모에’라고 한다. 모에는 일본의 오타쿠 3세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오타쿠 2세대(1970~80년대 생)들이 탄탄한 스토리와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 나타난 캐릭터성을 좋아했다면, 3세대(현재 서브컬처 소비자)들은 캐릭터성을 기반으로 나타난 캐릭터의 시각적 이미지에 더 흥미를 느낀다. 매력을 느끼는 부분을 ‘모에’라고 하며, ‘모에’는 인격을 동물화하며, 주체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제시키고, 시각적 이미지만을 남긴다.

일본의 3세대 오타쿠 문화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일본과는 조금 다른 문화가 형성되었다. 자국에서 소비할 만한 서브 컬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오타쿠들은 일본의 문화를 주로 소비하면서 2차 생산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2차 창작(소설, 팬픽, 만화, 일러스트 등등), 번역, 더 나아가 만화의 세계관을 가져와 새로운 캐릭터 창작을 하는 등의 소비자 역할 오가며 한국의 독특한 오타쿠 문화를 만들었다. 그 당시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였던 1980년대생 오타쿠들은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문화 생산자로서 자리 잡게 된다.

오타쿠 본인이 캐릭터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하며, 소비자인 점 또한 매우 독특한데다가, 일본의 오타쿠 문화 소비자가 주로 남성이라면, 한국에서는 주 소비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성향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에가 주체적으로 생산되어 왔는데,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K-pop 문화에서 적나라 하게 드러난다. 가수가 주체가 되어 세계관과 가치관이 구축되는 방향이 아닌, '맛집'으로 운영되기 위해 가수는 모에 요소를 계속 바꾸어 가며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런 이미지 판매 방식은 극에 달해 있다. 선만 남은 화면에서 소비자들은 이미 본인의 입맛대로 그들을 재구성 하고 있다.

김삼다

바쁘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익명인 개인, 1인 미디어,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난다. 그런 논의되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타임라인에서 흔적과 감각으로만 남기도 하는데, 그 흔적과 감각을 놓치지 않고, 글 그리고 이미지로 사회적 맥락과 분위기를 '캡처' 하고 있다. 2018 <캡처>부제:스샷! (개인전)에서는 90년생인 본인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인 여성, 정신병, 유저, 오타쿠 문화를 이야기했다. 광고매체인 '현수막' 그리고 상업콘텐츠인 '게임', 판매를 위한 '팝업스토어'와 같이 체험을 동반한 정보전달이 주를 이룬다. 이런 상업적인 포맷은 2010년대 이전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 단체에서 대량으로만 가능한 액션이었다면, 2010년도 이후 즈음 단체가 아닌 개인이, 그리고 다품목 소량이어도 가능한 액션으로 넘어왔다. 이제는 대형방송사가 개인 유튜브 계정이 견제하기 시작했고, 개인방송의 인기있는 형식을 다시 대형방송사에서 취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개인이 개발 및 제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90년대생, 그리고 작가 본인도 이런 변화에 준비된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맷의 선택 또한, 우리이기에 더욱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5. 박다희

“삽살 총각(靑)” (2018)

“삽살 총각(白)” (2018)

비닐 끈의 퍼석함은 짚의 푸석함과 꺾 닮았다. 비닐 끈은 현대의 짚이다. 도시의 새들마저 짚 대신 비닐 끈으로 동지를 치기도 한다. 비닐 끈으로 만든 길게 자란 털은 썩지 않는 '터럭'이다. 터럭이 가득하여 너풀거리는 모습은 마치 구마의 의미를 가지는 삽사리와도 같다. 본래 '총각'은 관례를 치르기 전 아이의 머리를 딸아 두 뿔 모양으로 만드는 행위를 지칭했다. 동자의 모습을 띤 영험한 기운의 삽살 총각은 인공의 털 안에 진을 치고 있다. 마치 도시의 새처럼.

The crumbly nature of the plastic straps is quite similar to that of the straw. Plastic straps are modern straws. Long-grown hair is not rotten. The furry figure is like a shaggy dog and also 'Sap-sal' means 'getting rid of bad luck'. The word 'Chong-gak' which today refers to a young unmarried man, originally referred to the act of a child braiding his hair and making it like two horns before a custom. 'Sapsal Chonggak' which has the spirit of a young boy, is encamped in artificial fur like a bird in a city.

박다희

조각과 섬유 설치작업을 주로 하며, 세상의 투박하지만 예쁜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것과 상충되는 감각의 오묘한 공존을 탐구한다. 최근에는 민간신앙과 구전되어지는 신화 속 인물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Dahee Park was born in 1992 in Seoul, South Korea. Park mainly works on a sculpture and fiber installation. Park deals with the image of the clunky but pretty things of the world and explores the odd coexistence of sensations that conflict with that. Recently, Park has been focusing on Asian folk belief and mythological characters.

6. 조윤중

“Memory” (2018)

“Memory 2” (2018)

<우리의 순간>

인간에게 필수적인 소통의 과정은 현대사회의 발전과 함께 매우 간단해졌다. 우리의 소통은 언뜻 보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현대인들은 그저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화면들에 띄워진 텍스트를 읽고, 이미지들을 바라볼 뿐이다. 소통은 순식간이며, 얇은 감상은 금방 사라진다.

우리의 빠른 소통은 더욱 그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고, 더 외로움을 느끼게 만든다.

나의 작업의 바탕재료 중 하나인 아크릴판은 그 특징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익숙한 '화면'-스마트폰 화면, 컴퓨터의 화면-을 연상시킨다. 동시대의 관람자들에게 화면에 비치는 본인의 모습과 화면 안에 띄워진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다. 이는 나의 그림을 관람하는 것 자체가 현대인들의 소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면 안의 확대되어 잘린 신체는 소통의 내용이다. 우리의 소통은 깊은 대화와 사유가 아닌 작은 화면 안에서 잘려 보이는 이미지의 어떤 부분-주로 내가 선택하여 확대한-과 빠르게 지나간 순간의 느낌으로 채워진다. 그 순간에 느껴진 짧은 느낌과 얇은 감상들 중 어느 것들은 기억에 남게 될 것이고, 어느 것들은 다시 사라질 것이다. 우리들은 순간을 쓰는 방식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소통이 더욱 빨라지고 짧아짐에 따라 우리의 순간은 점점 길어지고, 그 의미는 깊어진다.

또한 화면 너머로 혼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이미지를 차용하여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는 나의 외로운 작업은 그 자체로 매일 '외로운 소통'을 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일상을 상징한다.

조운중

1991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는 동양화를 전공하였다. 회화에서의 다양한 재료들의 사용과 혼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좀 더 현대적인 평면 작품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7. 김영동

“너라면 내 뒤를 밀어버려도 좋아” (2018)
“우리는 경기장 속 축구공의 검정색을 6개밖에 보지 못 해” (2018)
“느닷없는 선동을 향한 갈림길” (2017)

너라면 내 뒤를 밀어버려도 좋아:

캄캄한 어둠 속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불안한 세상 속을 헤쳐나가는 앞사람의 뒷모습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너라면 내 뒤를 밀어버려도 좋아”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간다. 그는 우리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를 믿기에 약점을 드러내며 나아가간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본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본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뒷사람을 의심하며 날을 세울 것인가, 그들에게 뒤를 맡기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경기장 속 축구공의 검정색을 6개밖에 보지 못해:

인간은 자신의 맥락 속에서 해당 사건을 바라본다. 자신의 인식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한다. 하지만 빛으로 사건을 인식하는 인간의 한계는 그림자로 나타나고 모든 사건에서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며 인식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본 남을 믿자니 나의 인식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고, 나를 믿고자 하니 남이 방금 내가 그를 바라보았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모두의 말을 믿고자 하니 두 상황이 배치된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은 여러 개의 빛(인간이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물음을 제기한다. 여러 개의 빛들이 상충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느닷없는 선동을 향한 갈림길:

판단의 기초는 무엇일까. 판단은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지 근거에 깔린 것은 아니다. 판단의 기초는 문제의식을 만드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입장이란 말 그대로 서 있는 장소, 자신이 어디에서 서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가이다.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 생기고 문제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판단의 결과 또한 입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판단의 기초가 입장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입장이란 몸을 기반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몸은 감정과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진정한 설득을 위해서는 몸과는 유리된 논리가 아니라, 몸과 연결된 감정을 움직여야 한다. 감정을 이용한 설득. 그것은 설득이라기보다는 선동이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김영동

나는 큰 고민 없이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미대생이었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군인이었던 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만일 군에서 시위대를 테러범으로 간주해 출동명령이 떨어진다면 나는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등의 다양한 고민을 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녹아 있던 내가 사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순간이고 그곳에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질문했던 순간이다. 그리고 이 의식은 이후 나의 삶을 이루는 ‘근대’라는 것에 집중하게 했다. 관심은 점차 의문으로 바뀌며 근대가 주장하는, 변증법을 통한 진보의 세계관은 의문이 되어 [근대인을 향한 천국의 실소], [부서진 다이제에 대한 연구]라는 작품으로 남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데카르트의 말은 의문이 되어 [cook on the cutting board], [너라면 내 뒤를 밀어버려도 좋아]라는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과학적 방법론이 바탕이 된 근대적 사고관에 대한 의문은 나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나의 최대 관심사다.

8. 최유나

“폭발” (2019)

“무제” (2019)

방문을 열면 온통 자연의 색을 눈에 담을 수 있었다.

화가이신 어머니,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주변에 집이라고는 한 두채밖에 없으며 밤마다 멧돼지가 내려올까 걱정하며 잠들어야 하는 아주 깊은 촌락에 살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자연에게서 생활과 감정을 배웠다.

분노의 감정이 들 때, 무언가 박살내고 싶은 감정이 들 때마다 그 다양하고 풍부하며 어떠한 인공물로도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자연의 색상을 떠올리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최유나

60-80년대 전쟁 중, 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의 주인공 대부분은 반전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전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반전운동에 재미로 참여하는 인간인데,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않아도, 매 끼니 비싸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먹지 않아도, 바람피지 않는 애인을 사귀지 않아도 어떻게든 흐르겠지-하며 순간의 행복을 위해 마약과 섹스를 하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린다. 그냥 그런 흐름을 탄다.